

[목포권]

남도 토요경매 인기 쑥~쑥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술애호가들에게 그림을 공급해 온 남도예술은행의 토요경매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과 23, 30일 등 모두 3차례 열린 남도예술은행 개설 2주년 기념 경매 행사에서 작품 120점이 모두 낙찰됐다.

이번 기념 경매에서는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서 1천여명의 미술 애호가들이 물려와 매회 40점씩 출품된 경매작품이 모두 낙찰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는 전남도가 지역 전업미술작가들의 창작

지난달 개설 2주년 이벤트 행사 120여점 낙찰

최근 3개월새 주마다 평균 10여점 낙찰 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등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 10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현장경매 방식으로 2006년 8월부터 진도 운림산방 현장에 경매시장을 개설, 현재까지 108회째 매주 토요일 경매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3억7천만원의 작품 구입 비로 한국화, 문인화, 서예부문에서

124명의 작가를 선정, 1천383점의 작품을 구입했고 540여점이 낙찰되며 1억3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개설 초기 매주 평균 4점 내외에 머물던 낙찰작이 올해는 6~7점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최근 3개월간은 평균 10여점이 낙찰되는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 운림산방에 개설한 남도예술은행의 토요경매 현장. 2년간 540여점이 낙찰돼 1억3천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장은 “공식경매와는 별도로 유명인사의 소장품 특별경매도 추진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운림산방 인근에서 올해 말 문

을 여는 다목적 미술관이 문을 열면 경매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뭐 철탑 세운다고?” 진도 주민들 뿔났다

한전, 제주도 전력 공급용 철탑 70여개 건립 예정

주민들 “생존권 무시” 건설 반대 군민대책위 구성

진도 주민들이 한전의 철탑 건립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진도 민주시민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진도읍사무소에 모여 가정 ‘송전탑 건설 반대 진도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이 철탑 건립 계획을 백지화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전은 진도 입회면~제주도 해저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 해남

문화 변전소에서 군내면, 진도읍, 지산, 임하면 지역을 관통하는 대형 철탑 70여개를 세울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한전이 진도지역을 두 곳으로 쪼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철탑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진행한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대책위원회는 “철탑이 세워지면 천혜의 자연경관 파괴와 함께 미관이 크게 훼손되는 등 진도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주장한다.

대책위는 주민 2만명 참여를 목표로 철탑 설치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남변전소에서 제주시까지 100km 구간의 해저에 매설된 송전선로가 한달에 한 번꼴로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선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안 흑산도에서는 ‘흑산도 배낭기미를 따라서’와 흑산도 및 손

‘목포 명물’ 유달산 조각공원 새 단장

유명 조각가 작품 41점 설치
표지석·관람로 등 재정비도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이 전시 작품을 새롭게 교체하고 지난달 29일 재개원했다. (시진)

지난 1982년 문을 연 유달산 조각공원은 그동안 전시됐던 작품들의 임대 전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사비를 포함한 17억원을 들여 새롭게 꾸몄다.

유달산 조각공원은 해양 중심 도시를 상징하는 ‘자연, 문화, 조각’을 주

제로 국내외 저명한 조각작가 작품 41점을 새로 설치했다.

또 관람에 지장을 주던 수목을 재배치하고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작품 설명이 담긴 조각작품 표지석 제작, 관람로 포장, 분수대, 매점 등 주변 시설물을 정비했다.

목포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조각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작가 작품 10여점을 추가 전시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한중 국제산단에 中 기업을 유치하라!

무안군 中 ‘투자박람회’ 참가, 본격 유치활동

무안군이 중국 삼부부와 길립성 정부가 주최하는 ‘제 4회 중국 길립 북동부 아부자무역박람회’에 참가, 본격적인 중국 기업 유치활동에 나섰다.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투자무역박람회에서 무안군은 153㎡의 전용부스를 마련해 중국 기업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홍보한다.

또 양파와 백련 가공품 등 34종의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삼석 군수는 2일 길립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한국의 날 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국제산

설명하고, 행사에 참가한 중국 정부인사와 기업들에게 지원과 투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과 국토 해양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대중국 기업유치 활동의 시작”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우량 기업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한중 국제산단에 中 기업을 유치하라!

설명하고, 행사에 참가한 중국 정부인사와 기업들에게 지원과 투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과 국토 해양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대

중국 기업유치 활동의 시작”이라

며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우량

기업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계

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휴어기 끝…中 어선이 몰려온다

감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45일간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50t급 이상 경비함정을 투입,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또 해양 통신원, 어업지도선, 해군 등과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계 기반으로 중국어선 단속시 발생하는 경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이상규기자 ls@

늘 푸른 흥도 숲 속으로·조도 이야기 등

섬 탐방 프로그램 계속 운영키로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김용무)가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각 섬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

서부사무소는 그동안 목포지역에서 소외계층 이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국립공원 교실’을 신안 비금, 도초 지역 초등학생과 진도 조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서부사무소 김용무소장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함과 즐거움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간통으로 전달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신안 흑산도에서는 ‘흑산도 배

낭기미를 따라서’와 흑산도 및 손

암 정약전에 대해 알아보는 ‘미리 보는 자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지정된 흥도에 서는 ‘늘 푸른 흥도 숲 속으로’를 각각 운영중에 있다.

또 새떼처럼 많은 섬이 있다해서 이를지어진 진도군 조도면도 리산 일대에서 ‘조도 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부사무소 김용무소장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함과 즐거움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간통으로 전달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예약 문의 061-284-9116
/신안=조완규기자 wncho@

목포대, 내년부터 간호학과·영어교육과 신설

목포대학교에 내년부터 간호학과와 영어교육과가 신설된다.

신설학과는 정원 40명의 간호학

과를 비롯해 영어교육과(15명), 해양시스템공학전공(20명), 생명과학과(40명), 교육대학원 영재교육전공·평생교육전공 등 6개 과에 달한다.

2007년 수학교육과에 이어 이번 6개 과 신설로 교육 중심 대학으로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목포대는 학과·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 및 전공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한중 국제산단에 中 기업을 유치하라!

설명하고, 행사에 참가한 중국 정부인사와 기업들에게 지원과 투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과

국토 해양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대

중국 기업유치 활동의 시작”이라

며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우량

기업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계

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수완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원구청 앞)

산지동 자연녹지

- 전자광고 - 보호병원 사이 약 6,000㎡

-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

일곡자구 고급주택가 부지

- 토지A, 일신초교 서측 약 380㎡

- 고급주택 단지지역 / 복도 토공사 복도

단독주택 매매

- 운수동 중앙여고~문화예술회관사이

대지 약 200㎡ 2층주택 / 1층 주인집

2층별도 출입 / 1구구 임대증

정원수, 연못 관리상대화장실 /

최신인터넷이 가능한 원룸

당양 관리지역 일야

- 창평 23,000㎡ / 폭 40m 진입로 확보

- 철단 일대에서 10분 거리

- 공장, 폐차장, 물류창고, 녹지시설 가능

원룸매도 (수익률 약 15%)

- 도산역세권 / 원룸 17실, 쓰리룸 1실

- 매매가 4억3천만원 / 실거래가 2억3천만원

- 보증금 2억, 월세 280만원

수완지구

- 초대형화원 최고인지 확보

- 아파트 분양권 로열티 다수 확보

(현진, 코오롱, 우미, LG자이...)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촌, 평동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기타